

## 구윤철 부총리, 뉴욕 금융가(街) 주요 금융기관 면담 결과

- 아폴로(Apollo), 블랙락(Blackrock), 핼코(PIMCO) 최고위급과 개별 면담을 갖고 외환·자본시장 개혁, AI 대전환 등 한국의 주요 정책방향 논의
- 한국 경제 펀더멘털,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외환·자본시장 개혁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참여 및 투자 협력 의지 표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14(화)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4.14일 10시)」 개최 계기로, 뉴욕 금융가(街) 주요 금융기관(아폴로, 블랙락, 핼코)의 최고위 인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외환·자본시장 개혁, AI 대전환 등 한국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 ①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 : 마크 로완(Marc Rowan) 회장(CEO & Chair)  
② 블랙락(Blackrock) : 롬 골드스타인(Rob Goldstein) 최고운영책임자(COO)  
③ 핼코(PIMCO) : 존 스텐진스키(John Studzinski) 부회장(Vice Chairman)

### 【참고】 양자면담 기관 개요

- ✓ 아폴로 : 사모(Private Equity), 신용(Credit), 부동산·인프라(Real Assets) 부문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대체자산 운용사, '25말 운용자산 약 0.94조 달러
- ✓ 블랙락 : ETF·패시브 투자 중심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25말 운용자산 약 14조 달러
- ✓ 핼코 : 세계 최대 채권 투자기관, '25말 운용자산 약 2.3조 달러

### 【 ①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면담 결과 】

구 부총리는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자본시장 발전, 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기회, 양측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논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피지컬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I 인프라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서 대규모 장기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 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크 로완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AI·데이터 인프라, 에너지 전환, 전력망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아폴로는 한국의 핵심 전략 분야에서 장기·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장기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 ② 룩 골드스타인 블랙락 최고운영책임자 면담 결과 】

구 부총리는 룩 골드스타인 블랙락 최고운영책임자(COO)와의 면담에서 한국 외환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1.9일)」을 마련하는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무 및 고위급 전반에 걸쳐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롭 골드스타인 블랙락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시장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블랙락이 고객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관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시장참여자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기술(알라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확고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③ 존 스테진스키 핼코 부회장 면담 결과 】

구 부총리는 존 스테진스키 핼코 부회장과 면담에서 한국의 WGBI 편입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 부총리는 4.1(수)부터 한국의 WGBI 편입이 성공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를 지지해 준 핼코측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WGBI 편입은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인프라가 선진시장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언급하며, 향후 실제 투자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과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존 스테진스키 부회장은 한국의 WGBI 편입은 한국 채권시장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로 향후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핼코는 한국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을 장기적인 파트너이자 중요한 시장으로 지속 인식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서기관 이용준 (cjeye86@korea.kr)
			사무관 정민종 (belljeong@korea.kr)

